

| 우리말 보물찾기 |

그때 그때 달라요

· 이상배 / 동화작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탐욕이라 한다. 탐욕스런 사람은 금을 얻어도 욕을 얻지 못함을 원망스러워한다. 지위를 이용하여 유세를 부리고, **시헛말**로 갑질을 한다. 채근담에서 이르기를 “죽함을 아는 사람은 명아주국도 고깃국보다 맛있게 여긴다”고 하였다. 지위 높은 사람이 탐욕하는 것을 탐관오리라 하였다.

어느 고을에 한 사또가 있었다. 그는 소문난 탐관오리였다.

사또가 이방을 불렀다.

“이방, 바느질 잘하는 재봉사에게 관복 두 벌을 짓도록 하라.”

“사또나리, 또 관복 두 벌을 지으라 하십니까?”

이방이 **비웃적거리듯이** 되물었다. 사또는 며칠 전에 관복을 새로 지었기 때문이다.

“네 말하는 꼴이 꼭 **머깃장**으로 들리느냐. 두 벌씩 열 번이라도 지으려면 지을 것이지.”

“알겠습니다, 사또나리.”

“한 벌은 임금님을 알현할 때 입을 것이고, 또 한 벌은 백성들을 만날 때 입을 옷이니 좋은 옷감으로 짓도록 하라, 알겠느냐?”

“예, 사또나리.”

이방은 재봉사를 불렀다.

“사또의 관복 두 벌을 만들게.”

“예? 또 관복을 두 벌씩이나 만들어서 무엇 하려고 하십니까?”

“난들 알겠는가.”

“이번에는 **삿**을 주시는 거지요.”

재봉사는 여태까지 옷값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염려 말게. 이번엔 내가 꼭 받아주지. 그 대신...”

이방은 재봉사의 귀를 잡아당겨 무슨 말인가 소곤소곤 말했다.

“알았습니다, 이방나리. 주문하신 관복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이틀 후, 재봉사는 새로 지은 관복을 가져왔다. 이방은 새 옷을 가지고 사또에게 갔다.

“사또나리, 새로 지은 관복을 가져왔습니다. 임금님을 알현할 때 입을 것입니다.”

사또는 흠족해하며 관복을 입었다. 그런데 옷이 뒷자락은 길고 앞자락은 짧았다.

“이게 뭐냐. 앞자락이 짧지 않느냐.”

사또가 버럭 역정을 내었다.

“사또나리, 이제 보니 옷을 맞춤으로 아주 잘 지었습니다.”

“뭐라고, 잘 지었다고?”

“예. 이 관복을 입고 임금님께 예를 올리게 되면 앞은 짧고 뒤가 길어서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사또는 임금을 배알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았다.

“후후, 듣고 보니 그렇구나.”

사또는 만족해하였다.

이방은 사또의 기분 좋은 때를 놓치지 않았다.

“사또나리, 재봉사에게 이번 관복값은 주셔야지요.”

“옷값이라? 이방이 그놈하고 **동무장사**라도 하느냐, 삿을 걱정하게.”

“아닙니다. 여태 한 번도 옷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허허, 그런 일이라면 이방이 알아서 할 것을. 어디 **뜬돈**이라도 있으면 쳐주어라.”

다음 날, 재봉사는 나머지 관복을 가져왔다. 사또는 새로 지은 옷을 입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자락이 길고 뒷자락은 짧았다.

“어제는 앞이 짧고 뒤가 길더니, 오늘은 뒤가 짧고 앞이 길다? 이 옷을 어떻게 입으란 말이나.”

사또는 온 상을 찌푸리며 **뿔따구**를 냈다.

재봉사는 마음이 **소마소마**하여 덜덜 떨었다.

“사또나리, 고정하십시오. 이 옷도 맞춤으로 잘 지었습니다.”

“이방은 **눈비음**으로 **말잔치**를 늘어놓지 말라.”

“이 관복은 사또께서 백성들을 만날 때 입을 옷이지 않습니까. 사또께서 백성들을 만날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만나실 때는 입은 꼭 다물고 눈은 허공을 쳐다보며 뒷짐을 지지 않습니까.”

이방은 평소의 그답지 않게 **손시늉**까지 해가며 **시실거렸다**.

“그래서 어땠다는 것이냐?”

“나리, 보십시오. 이렇게 배를 숙 내밀고 어깨를 쪽 펴면 긴 앞자락이 짧은 뒷자락과 아주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으흠, 하긴 그렇구나.”

사또는 배를 숙 내밀고 ‘어흠, 어흠’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뒤로 젖혀보았다. 이방의 말대로 긴 앞자락이 몰라가 앞뒤가 맞았다.


“어흠, 맞춤옷이 좋군 좋아.”

“나리의 위엄이 기가막힙니다.”

이방이 **피새**를 떨었다.

사또는 거들먹거리며 **용춤**을 추었다.

그 모양을 본 재봉사는 속웃음을 참느라 배가 아팠다. 그러나 사또를 지켜보는 이방의 모습은 조금 전 피새 떨던 모습과는 달리 **아귀찬** 모습이었다.

기분이 좋아진 **배똥똥이** 사또는 과연 재봉사에게 옷값을 주었을까? 

동화에 나오는 순우리말 뜻풀이

시헛말: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

비웃적거리다: 남을 비웃는 태도로 자꾸 빈정거리다.

머깃장: 잠짓 머기대는 행동.

삿: 알한 데 대한 보수로 주는 돈이나 물건.

동무장사: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하는 장사.

뜬돈: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돈.

뿔따구: 불유쾌한 흉동으로 활락 치미는 노여운 감정. ‘성’이 나서 얼굴을 붉히다. ‘뿔따구’는, ‘성’의 속어.

소마소마하다: 무섭거나 두려워서 마음이 초조하다.

눈비음: 남의 눈에 들기 위하여 겉으로만 꾸미는 일.

말잔치: 말로만 듣기 좋게 떠벌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손시늉: 손으로 어떤 모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짓.

시실거린다: 점잖지 아니하게 실없이 자꾸 까불어 웃다. 쓸데없이 자꾸 짓궂게 굴다.

피새: 알랑거리며 늘어놓는 말.

용춤: 남이 추어올리는 바람에 좋아서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하는 짓.

아귀차다: 휘어잡기 어려움을 만큼 벅차다.

배똥똥이: 배가 볼뚱하게 나온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이상배 |

동화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도서출판 좋은꿈 대표이다. 대한민국문학상, 윤석중문학상, 방정환문학상, 한국동화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저서로는 「책읽는 도깨비」, 「책귀신 세종대왕」, 「부엌새 아저씨」, 「우리말 동화」, 「우리말 바꾸기」, 「맛있는 순 우리말」 등이 있다.

| 특별기고 |

중국 대륙과 대만의 '전문용어 사전 공동편찬 경험'을 묻다

- 윤소정 / 겨레말큰사전 연구원

최근 의료·보건, 법률, 국어, 건설, 체육 등 각 분야에서 남북 전문용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기점으로, '9월 남북 정상회담'을 거쳐 올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담'에 이르기 까지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탄력을 잃지 않고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 전문용어 통합에 대한 요구는 1990년대부터 있었는데¹⁾ 남북 전문용어 구축과 실제적 통합안 마련은 비교적 최근에만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이에 필자는 기존의 연구 성과와 최근의 연구 흐름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전문어 통합 경험을 살피고, 이를 통해 남북 전문어 통합 과정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짚어 보고자 지난 5월 중국 북경에 있는 <전국과학기술명사심정위원회(全国科学技术名词审定委员会)>³⁾를 찾았다.

양안(兩岸)은 중국 대륙의 <전국과학기술명사심정위원회>와 대만 <교육연구원(教育研究院)>의 합작 아래 2015년 19,500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양안과학기술상용사전(两岸科技常用词典)》을 발간하였다. 이 사전은 수학, 물리, 화학·화공, 천문, 기상, 지질지리, 생물기초, 동물, 식물, 의학 등 31개 분야의 기본 어휘를 표제어로 선정해 묶은 것으로, 중국 대륙의 규범자와 대만의 표준자를 병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양안과학기술상용사전》의 편찬 주임 리우칭(刘青) 선생님과 <전국과학기술명사심정위원회> 부주임 페이아쥘(裴亚舟)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한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양안 전문용어사전 공동편찬 과정과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양안과학기술상용사전』



왼쪽부터 <전국과학기술명사심정위원회> 부주임 페이아쥘, 《양안상용사전》, 《양안통용사전》의 대륙측 편찬 주임 리싱지엔, 《양안과학기술상용사전》의 대륙측 편찬 주임 리우칭, 필자 순.

중국 대륙에서 '인터넷(网络)', '정보(信息)', '소프트웨어(软件)', '우주왕복선(航天飞机)', '플라스마(等离子体)'라고 하는 것을 대만에서는 각각 '网路', '资讯', '软体', '太空梭', '电浆'로 달리 칭하는데, 중국 대륙측 통계에 따르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과학기술 분야의 명사는 전체의 30% 이상이다. 1949년 중국 대륙과 대만이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작된 양안 대립은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이 구상한 일국양제(一國兩制)와 장징궈(蔣經國)의 중국 '친지 방문 허용'을 발판으로 해빙 분위기를 맞는데, 이후 개최된 1993년의 왕고 회담(汪辜會談)에서 '양안 과학 기술 명사 통일'에 관한 본격적 협의가 시작되었다.

중국 대륙과 대만의 전문가들은 직접 대면, 전화,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전문어 통합 작업을 진행하는데, 주요한 공동편찬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양안이 공통으로 쓰는 것을 먼저 합의하고 다른 것은 보류하여 차츰 일치시킨다(求同存异, 逐步一致)"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말에는 기존의 방법을, 새로운 말에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다(老词老办法, 新词新办法)"이다. 후자에 대해 리우칭 편찬 주임은 설명을 덧붙였다.


"신어에 대해서는 양안의 학자가 한데 모여 토론하고, 하나의 용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문용어의 통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용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조 작업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천체(天体)'라는 단어로 기존 용어의 단일화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양안의 천문물리학적 학자들은 모두 '天体'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륙의 '天体'라는 말은 대만에서 '나체(裸体)'의 의미로 쓰이므로, 설불리 단일화할 수 없죠. 이미 양쪽에서 공표한 전문용어들은 각 측의 언어습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언중(言衆)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양안의 전문용어 차이 발생 원인은 1949년의 역사적 요인을 제외하고도 양측이 다르게 실시한 언어 정책과 어원의 다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국 대륙과 대만은 양측의 전문가들이 선정한 전문용어를 영어를 매개로 하여 대조 작업을 벌이는데, 이때 양측이 수용한 영어의 계통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리우칭 편찬 주임은 말했다.

"'영어'라고 하면, 다 같은 듯하지만 사실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심지어 중국식 영어 등 어떤 계통의 것을 거두어 썼느냐에 따라 언어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대만은 구미(歐美)식 영어를 받아들였죠. 북한은 러시아어의 영향을, 한국은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문용어 대조에 있어 양안보다 더 복잡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어 통합에 앞서 각 측의 전문용어 표준화가 급선무입니다. 서로 전문용어에 대한 표준화가 잘 되어 있다면 후의 통합 작업에서는 표제어 선정이나 작업 지침 마련에서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겠죠."

<전국과학기술명사심정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130개 영역에서 양안 전문용어 대조 작업을 마쳤다. 《양안과학기술상용사전》 발간 이후 현재는 96개 전문 영역에서 500여 명의 양안 전문가가 참여한 《중화과학기술대사전(中华科学技术大词典)》을 편찬 중이며, 약 50만 개의 표제어가 수록될 예정이다.

"구축한 전문용어 자료는 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⁴⁾ 《양안과학기술명사차이머편람(两岸科学技术名词差异手册)》도 참고할 수 있죠. 2019년 올해 《중화과학기술대사전》이 발간될 예정인데, 발간되면 제일 먼저 연락을 하죠. 또 봅시다."

리우칭 편찬 주임, 페이아쥘 부주임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남북의 전문용어 통합, 그리고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나누고 쌓아야 할 '경험'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1) "남한과 북한의 학술 교류는 컴퓨터 정보 처리 분야에서 먼저 시작되어 컴퓨터 자판 통일 등 국어 정보화 관련 통합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이찬규 외(2014), <남북 언어통합 종합 계획 수립>, 국립국어원, 31쪽.
2) 이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신중진 외(2015) <2015년 남북 기초 전문용어 분석: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 신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신중진 외(2017) <남북 국어 분야 전문용어 구축>, 신중진 외(2018) <남북 역사 분야 전문용어 구축>을 참조할 수 있다.
3) 국무원(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기구로, 과학기술부와 중국과학원의 지도하에 있으며, 중국 과학기술어 표준화를 위한 지침, 정책 등을 수립한다.
4) <http://www.terminline.cn/index.htm> 참고, 이 글에서 언급한 사전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李行健主编等(2013), 《两岸常用词典》(珍藏版), 高等教育出版社.
海峡两岸学者共同编写(2015), 《两岸通用词典》, 高等教育出版社.
全国科学技术名词审定委员会事务中心(2015), 《两岸科技常用词典》, 高等印书馆.
全国科学技术名词审定委员会事务中心(2015), 《两岸科学技术名词差异手册》, 大连理工大学出版社.

| 새로 찾은 겨레말 |

‘흠집내기’

- 이길재 / 겨레말큰사전 새어휘부 부장

특수 합금에 열처리까지 완벽하게 한 겁니다 예, 곰 배때지나 멧돼지 모가지를 찢어도 폭 들어갑니다, **기스** 하나 안 납니다. (한창훈,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 295쪽)
건성으로 훑어보았는데 그나마 **기스** 투성이여서 그냥 쥐도 발을 사람 없을 그런 시계였다. (김종광, 『전당포를 찾아서』, 113쪽)

소설가 한창훈, 김종광의 소설에 보이는 ‘기스(きず)’가 일본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말로 ‘흠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였다. 아주 어설프게나마 일본어를 알게 되었을 때 희미한 기억 속에 떠오른 말이 ‘로꾸 고 산주’이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씹으며 혼잣말처럼 웅얼이시던 말이다. ‘로꾸 고 산주(ろくごさんじゅう)’는 바로 구구단이었던 것이다. 어디 그뿐이었겠는가? ‘가미소리(かみもり, 면도날), 쓰메끼리(つめきり, 손톱깎이), 우와끼(うわぎ, 뒀옷), 오봉(おぼん, 쟁반), 와리바시(わりばし, 나무젓가락)’ 등 일본어의 잔재들이 우리 일상에서 떠올랐던 시절이 있었다.

‘기스’도 그런 말 중의 하나이고 지금도 무심결에 ‘흠집’보다는 ‘기스’라는 말이 특출 튀어나오곤 한다. ‘기스’와 ‘내다’와 ‘나다’를 결합하여 ‘기스내다’, ‘기스나다’와 같이 썼던 것처럼 ‘흠집’도 마찬가지로 ‘흠집 내다’, ‘흠집 나다’와 같이 쓰인다. 우리 사회에서 ‘기스내다’와 ‘기스나다’는 ‘어떤 사물에 이지러지거나 상한 자국이 생기게 하거나 생기다’의 의미로만 쓰였을 뿐이다.

요즘 새끼들은 물불을 안 가려. 찌기는 그렇다 치구, 찌르기는 왜 그렇게 휘둘러대. 옆엿놈 **기스내겠다** 라. (김원일, 『아우라지로 가는 길(1)』, 220쪽)
뭘,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장물아비들이 장물 취급할 땐 곧잘 써먹는 수법이지. 그래야만 감쪽같고, 또 물건도 깨지거나 **기스날** 위험이 없으니까. (김만태, 『큰도둑』, 261쪽)
비늘 쪽을 도마에 붙이고 꼬리쪽 살을 **흠집내어** 비늘 위에서 칼을 멈춘다. (백가흠, 『광어』, 『귀뚜라미가 온다』, 13쪽)
흰 거품 속에 마구 나뉘구는 머리통들 중에 말굽쇠 모양으로 **흠집난** 내 머리통도 끼어든다. (현기영, 『지상에 손가락 하나』, 222쪽)

그러나 네거티브(negative) 공방이 정치권의 한 모티브가 되면서 ‘흠집내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나를 홍보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흠집내는** 거였지. (이승우, 『동굴』, 『검은 나무』, 219쪽)
경쟁후보에게 해될 일이라면 일부러 다리품을 팔아 찾아다니는 판국인데 김부식이 2번 후보에게 **흠집날**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은희경, 『마이너리그』, 211쪽)

은희경이나 이승우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흠집내다’는 앞에서 말한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인다. 전자의 ‘흠집’이 ‘물리적 실체’라면 후자의 ‘흠집’은 ‘심리적 실체’이다. 후자의 ‘흠집내다’는 ‘다른 사람의 결점 따위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들추어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뜻을 갖는 ‘흠집내-’에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기’가 결합된 말이 ‘흠집내기’이다. ‘흠집내기’는 1990년대 초 신문기사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다.

물론 이같은 대외적인 명분의 뒤에는 金 총재의 大權구도와 관련, 일찌감치 盧 총리를 물러앉게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盧 총리에 대한 **흠집내기**를 해야 한다는 계산이 포함돼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 (연합뉴스, 1991. 5. 6)
그런가 하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야당세 만회를 위한 기회로 이용하려거나 전정권에 대한 **흠집내기**에 주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향신문, 1993. 8. 31)

‘흠집내기’는 아직은 정치권에서 더 유용한 말이지만 점차 우리의 일상 속으로도 깊이 파고들고 있다.

또래들끼리는 목소리를 낮춰 주로 제 청춘 때 사연들, 남편 홍보기, 시부모 욕하기, 시누이 **흠집내기**, 자식 교육에 관한 것 따위로 수업내용을... (한창훈, 『홍합』, 100쪽)
너희 매형을 **흠집내기** 위해 벌써부터 혈안들이다. (조창인, 『등대지기』, 57쪽)
트집잡고 **흠집내기**에 미골난 그들이 못할 짓이 따로 있을 리 없었다. (조정래, 『한강(9)』, 60쪽)

남한에서는 이미 ‘흠집내기’가 남을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는 ‘네거티브’의 의미로 고착된 반면에 북한에서는 남한과는 달리 ‘물리적 흠집’을 생기게 하는 뜻으로만 쓰인다.

괜히 남의 사정 봐주다가 제 상판에 **흠집내기**는 싫었다. (허문길, 『폭풍의 산아(3)』, 133쪽) 

| 남녘말 북녘말 |

쪽 내다, 그리고 미용실/미용원

- 김완서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I. 쪽 내다

1990년 3월 대학교에 입학하고 신입생 환영회를 갔다. 신입생들이 다 모이자 한 선배가 우리 앞에 섰다. 그러면서 우리 과의 전통은 공동묘지에 가서 막걸리 마시는 거라고 하면서 신입생 모두를 끌고갔다. 예나 지금이나 술을 전혀 못하는 나로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장소마저 공동묘지라니 어느 것 하나 내키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빠질 묘책도 생각나지 않아 예라 모르겠다, 라는 심정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따라갔다. 막걸리가 가득 담긴 술잔이 모두에게 주어졌다. 당연히 안주는 별 볼 일 없었다. 술잔을 앞에 두고 마시지 않고 버렸다. 마셨다가는 그 위의 일어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에 마시지 않고 시간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다. 그리고 있는데 89학번 선배 중에 한 명이 내게로 왔다. 아무리 봐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나랑 비교해도 내가 훨씬 나은 얼굴인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 그 선배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넌, 나와 생김새가 닮은 것 같다.”

기분이 상하는 순간이었다. 생김새가 닮다니,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나도 모르게 술잔에 손이 갖고 냅다 원샷을 해버렸다. 그러곤 누구의 묘인지는 모르지만 죄송스럽게도 그 앞애다 먹은 것을 다 토했다.

군대에서 회식하던 날, 평소 술을 못 먹는 나를 위해 콜라를 시켜주던 중대원들이 그날은 작심을 한 것 같았다. 소주를 따른 잔을 내게 건네더니 고참 하나가 일어나 이렇게 외쳤다.

“완서의 아버지를 위하여!”

안 마실 도리가 없었다. 원샷했다. 그걸로 끝이려나 했다. 내가 원샷을 한 것을 확인한 고참은 내게 또 술을 따라주었다. 그러곤 또 외쳤다.

“완서의 어머니를 위하여!”

그날 우리 가족은 다 나온 것 같았다. 그날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히 안 건 술 먹고 토할 때 먹은 것 역순으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 들어와 평양에 가서 남북공동편찬회의를 마치고 만찬이 있었다. 근 5년 만에 이루어진 회의이고 만찬이어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처음에는 맥주로 시작하더니 40도가 넘는 술이 나왔다. 40도 넘는 술은 먹어본 적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조를 이뤄 회의를 했던 북쪽 선생님이 내게 40도 술을 따라주며 원샷을 요구했다. 어쩔 수 없었다. 원샷을 했다. 그리고 시간이 차츰 흐르자 남쪽 선생님들이 쭈군거리기 시작했다. 술기운이 돌아 얼굴이 벌겍게 되더니 급기야는 대머리인 내 머리까지 빨갱게 달아오르는 모습에 하는 쭈군거림이었다.

“완서 선생님 머리 신호등 됐다. 빨간불 들어온 신호등.”

그렇게 내 머리에 신호등이 들어오고 양각도 호텔 화장실에 가 그 비싼 음식을 다 토했다.

남쪽에서는 술자리에서 ‘술잔을 들고 한 번에 남김없이 마시라’는 의미로 ‘원샷’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영어 표현을 쓰지 않는 북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이 ‘쪽 내다’이다. 남북공동편찬회의를 할 때 북쪽 선생님과 만찬을 하면서 술을 마실 경우 항상 이런 표현을 쓴다.

“완서 선생 쪽 냅시다.”

쪽 이 말은 우리의 ‘원샷’과 같은 의미로, 술을 한 번에 남김없이 마시자는 요구인 것이다. 북측 용례에 나타나는 ‘쪽 내다’를 보면 아래와 같다.

- 박위는 윤통에게 술대접을 내주며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부원수, 행동속에 새내대장부의 말이 있나니 우리 각자가 서부르게 말로써 행동을 약속하지 맙시다. 자, 부원수도 속이 활풀리게 {쪽 내우}.》 <저자:리평><출전:김기여 불타라><지역:북>
- 원정립은 유리잔에 할량거리도록 술을 부어 전문태에게 내밀었다. 《{쪽 내게}, 그럼 속도 훈훈해질걸세.》 <저자:김용한><출전:기쁨><지역:북>

양각도 호텔의 빨간색 신호등, 다시 그 신호등이 켜지기를 바라며 오늘 아침 커피를 쪽 내본다.

II. 미용실/미용원

“헤어숍, 미용실, 미용원, 미장원.”

이 말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웹)》의 풀이를 빌리면 ‘파마, 커트, 화장, 그 밖의 미용술을 실시하여 주로 여성의 용모, 두발, 외모 따위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해 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집’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다. 그 가운데 ‘헤어숍’은 아직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미등재어이다.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위의 단어 사용 연령층을 분류하면 ‘헤어숍’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젊은층, ‘미용실’을 쓰는 사람은 40대 이상, ‘미용원’이나 ‘미장원’은 60대 이상일 것이다. 나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미장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다가 49살인 지금은 ‘미용실’이 입에 붙는 걸로 보면 이 분류가 얼토당토하지는 않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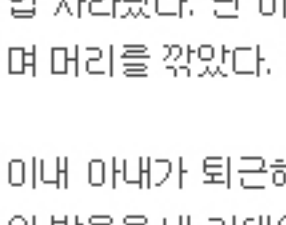
그런데 그렇고 내가 미용실에 갔다오면 간혹 나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네 머릿도 미용실에서 제값 다 받니? 깎을 것도 얼마 없는데 말야.”

머리술 없는 것에 자유를 누리고 사는 내게는 놀리는 말로도, 농담 같지도 않은 말들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깎는 것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 <아저씨>의 원빈처럼 거울 앞에서 미발기 하나 사서 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가격 검색을 해보니 3만원 이내로 편향은 미발기를 살 수 있고, 이 미발기로 세 번만 깎으면 본전은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냉큼 질러버렸다.

그리고 첫 번째로 아내의 도움을 받아 미발기로 머리를 깎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9000원이 아껴지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두 번만 더 깎으면 미발기 산 본전은 뽑는 셈이었다. 또 시간이 지나 없는 머리털이지만 제법 자라났다. 난 이번엔 원빈처럼 혼자 깎아보기로 했다. 그러곤 아내가 오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깎았다. 앞, 옆, 뒤 등 골고루 깎았다. 손에 느껴지는 감촉이 제법 미용실에서 깎은 듯 했다.

이내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왔다. 그러곤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나 혼자 깎은 머리를 보여줬다. 그러나 아내의 반응은 내 기대와 달랐다. 외마디 비명이 나왔다.



“당신 뒷머리 어찌지 알아?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아내가 찍은 사진을 보고 나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참사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그날의 내 뒷머리 사진을 공개하면 왜 대참사라고 하는지 알 것이다.

이 대참사를 수습하러 동네 미용실로 갔다. <#헤어숍>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미용사에게 내 머리의 수습을 부탁했다. 내 부탁에 미용사는 수습책이 ‘완삭(완전삭발)’ 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고, 그날 나는 머리털 빠지고 처음으로 ‘완삭’을 했다. 그날 미용사는 내게 한마디를 더 했다. 뒷머리는 깎고 왔으니 원래 만원인데 9000원만 받겠노라고.

《표준국어대사전(웹)》과 《조선말대사전》을 살펴보면 기본올림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어숍’은 아직 미등재어인 까닭에 그건 배제한 상태에서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웹)》은 ‘미용실’이 기본올림말이고 《조선말대사전》은 ‘미용원’이 기본 올림말이다. 그리고 《조선말대사전》에는 ‘미용실’이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이상만 놓고 볼 때 남쪽에서는 ‘미용실’이 북쪽에서는 ‘미용원’이 더 많이 쓰인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각 사전의 내용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웹)》

미용실 [명]

파마, 커트, 화장, 그 밖의 미용술을 실시하여 주로 여성의 용모, 두발, 외모 따위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해 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집. =머리방, 미용소, 미용원, 미장원.

《조선말대사전》

미용실 (표제어 없음)¹⁾

미용원 [명]

얼굴과 머리모양을 곱게 단정해주는것을 전문으로 하는 편의봉사기관. =미장원.

이는 말뭉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 말뭉치>에서 북쪽은 ‘미용원’이, 남쪽은 ‘미용실’이 더 많이 출현한다. 결론적으로 같은말 관계에 있으면서 남과 북 모두 쓰고 있지만 사용 빈도에서 차이가 나는 말 중에 하나가 ‘미용실’과 ‘미용원’인 것이다.

참고로 현재 내 머리는 ‘완삭’에서 벗어나 ‘반삭’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1) <조선말대사전(2006)> 과 <조선말대사전(2017)> 에 ‘미용실’이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지만 <겨레말 말뭉치>에서 검색을 해보면 ‘미용실’이 일부 검색된다.

| 겨레말 소식 |

제44차 임시 이사회



편찬사업회는 지난 6월 27일 제44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는 유임된 염무웅 이사장, 권재일 이사, 새로 선임된 박현선 이사, 유병규 이사 등이 참석해 규정 개정 및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임원 선임에 관한 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선임된 정도상 상임부이사장의 임기는 2022년 4월 26일까지다. 정도상 부이사장은 “편찬사업회를 안정적으로 원만하게 이끌면서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 2

| 겨레말 소식 |

제77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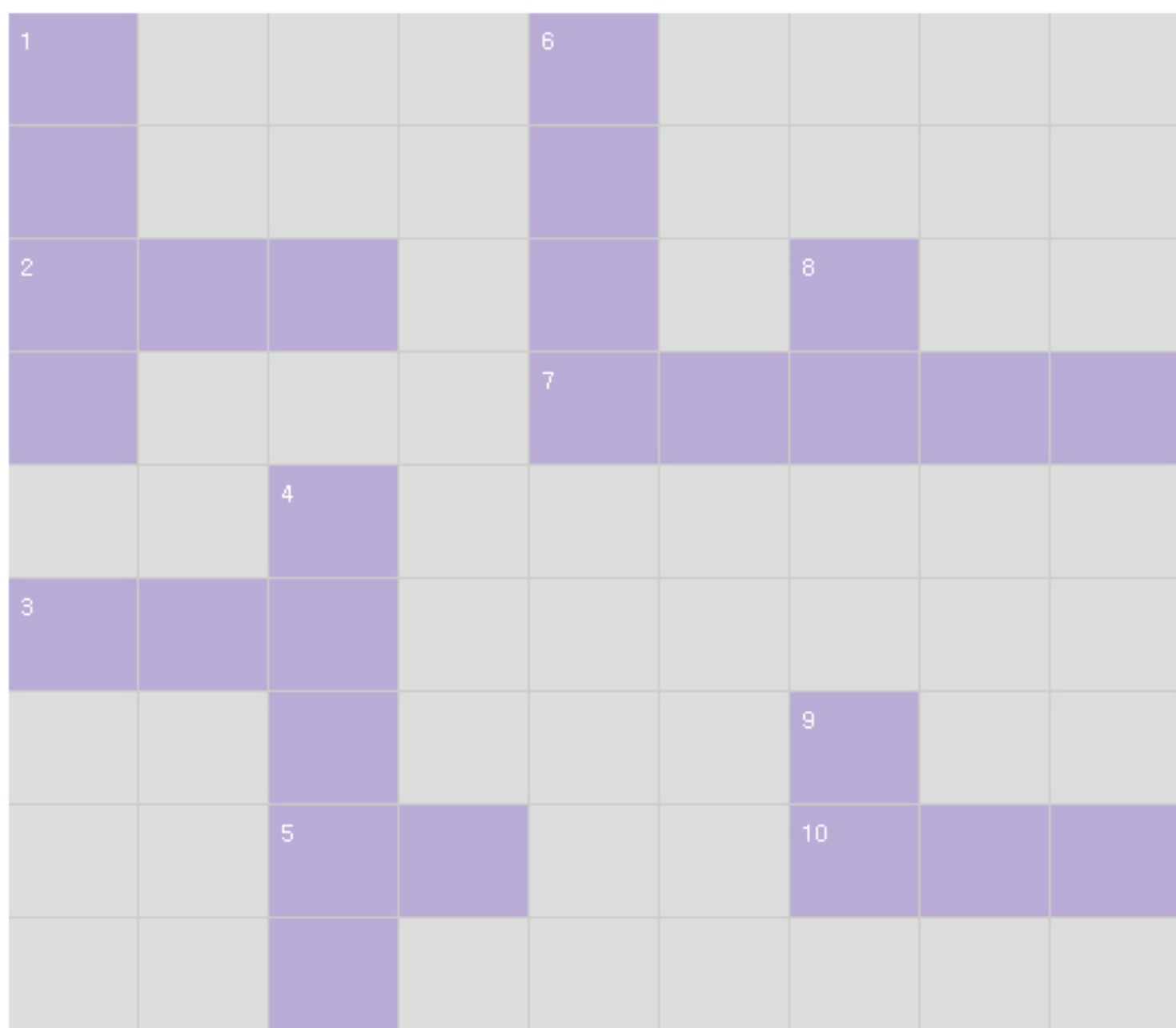


편찬사업회는 지난 7월 12일 제77차 남측편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4차 임시 이사회에서 위촉된 김창섭, 조남호, 이재규 편찬위원 등이 참석하여 사업회 일반현황 및 업무 보고, 제6기 남측편찬위원회 위원장 호선 등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6기 남측편찬위원장으로 홍종선 편찬위원이 호선되었다. 홍종선 편찬위원장은 고려대 국문과 명예교수로 2005년부터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2011년부터 남측편찬위원장으로 남측편찬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임기는 오는 2022년 4월 26일까지다.

1 [2]

| 겨레말 낱말 풀이 |



- ① “아주 보기 좋게 가름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갈썸○○.
예) 목이 삼끔하고 ○○한 얼굴은 피지 못해서 가무스름했다. 《기적소리》
- ② ‘당나귀’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말과에 속하는 집짐승의 한가지”를 뜻한다. ‘하늘을 보며 우는 소’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늘소.
예) “왕의 귀는 ○○○귀.” 《왕의 귀는 하늘소귀》
- ③ ‘하늘소’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돌드레과에 속하는 곤충》 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을 뜻한다. 힘이 세서 큰 돌도 든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드레.
예) ○○○는 나무즙을 빨아먹는 빠죽한 주둥이를 그의 꿈무늬에 쿡 박았습니다. 《나리꽃동산》
- ④ ‘살충제’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해로운 벌레를 잡아 없애는데 쓰는 약”을 뜻한다. ○○잡미약.
예) 벌레와 쥐를 잡아 먹는 새들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면 해로운 벌레와 쥐가 늘어나는것을 막고 ○○○○○도 그만큼 절약하게 된다. 《생물, 중학교 2학년》
- ⑤ ‘미빨’의 북측 표기. “입안의 아래쪽에 줄을 지어있으며 음식을 씹는 희고 굳은 것”을 뜻한다. ○발.
예) ○○을 닦다. ○○이 시리다.
- ⑥ “(말체) (직장이나 학교, 모임 같은데에) 정당한 이유없이 나가지 않다”는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주로 일 상대화에서 쓰이는 단어이다. 뚜꺼○○.
예) 송병무는 모임을 ○○○는 일이 더 잦아졌고... 《생명수》
- ⑦ ‘수다스럽다’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보기에 쓸데없이 말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그러한 데가 있다”를 뜻한다. ○○스럽다.
예) 리운병은 길가의 뽕나무앞에 웅크리고 앉은 계화의 등뒤에 딱 붙어서서 그 ○○○런 입을 다물 지 못했다. 《50년여름》
- ⑧ ‘패스’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체육》 축구나 농구 같은데서 같은 편끼리 공을 주고받으면서 연락 하는 것”을 뜻한다. 파○. 동의어 연락.
예) ○○하다.
- ⑨ ‘굳은살’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젓은 마찰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데에 국부적으로 생기는 두껍고 단단한 살”을 뜻한다. 떡○.
예) 손에 ○○이 박히다.
- ⑩ 북에서 ‘미안수’를 다듬은 말로 “얼굴, 손에 발라서 살결을 곱게 하는 물상태의 화장품”을 뜻한다. 살결 ○. 동의어 화장수.
예) 원 세상에, 벌써 주름살이 생기다니 ... 스스로 어이없는 생각을 금치 못하며 가는 한숨을 내쉬는 그는 화장실에서 ○○○ 병을 꺼내 들고 마개를 비틀었다. 《서해전역》

정답확인 >